

#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 (7)\*

전 철 응\*\*

- I. 서론
- II. 개별단어의 역사적 변화

## I. 서론

이 논문은 拙著 「충북방언의 단어 변천사」에서 ‘ㅂ’으로 시작하는 표제항들만 뽑아 그 내용을 보완하면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의 상정과 그에 따른 규칙 설정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방언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개별 단어의 발달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상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은 앞의 책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취한 단어 배열 방식은 표제어의 가나다 순이다. 또, 각 단어마다 일련 번호를 매겨 구별하였으며, 매 항목마다 먼저 文獻形을 제시하고 이어서 方言形을 郡別로 제시한 후 필자 나름대로 단어별 역사적 변화 과정을 想定하는 체제를 취하였다.

단어별 발달과정을 제시할 때에 문헌형과 단어의 변화 과정은 음운 부호로 나타낸 반면, 방언형은 음성 기호로 전사하였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사용한 음성 기호와 음운 부호, 그리고 문헌 자료의 출전과 약호, 방언 자료의 출처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헌과 그 약호

出典	略號	出典	略號
家禮諺解	가언	警民編諺解	경민
敬信錄諺解	경신	癸丑日記	계축
誠初心學人文	계초	功過神格	공과
觀音經諺解	관음	救急簡易方	구간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8)”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救急方諺解	구방	救荒撮要	구황
金剛經三家解	금삼	金氏諺簡	김언
南明集諺解	남명	內訓	내훈
老乞大諺解	노언	論語諺解	논언
楞嚴經諺解	능엄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신속
同文類解	동문	東醫寶鑑	동의
杜詩諺解初刊	두초	杜詩諺解重刊	두중
痘瘡經驗方	두경	馬經抄集諺解	마언
孟子諺解	맹자	牧牛子修心訣	목우
物譜	물보	朴通事諺解初刊	박초
朴通事諺解重刊	박중	朴通事新釋諺解	박신
方藥合編	방약	百聯抄解	백련
翻譯小學	번소	法語	법어
法華經諺解	법화	辟瘟方諺解	벽온
辟瘟新方	벽신	分門瘟疫易解方	분문
四聲通解	사성	三綱行實圖	삼강
三略直解	삼략	三譯總解	삼역
釋譜詳節	석보	石峰千字文	석천
禪家龜鑑諺解	선가	小兒論	소아
小學諺解	소언	詩經諺解	시언
新刊救荒撮要	구황	新傳煮硝方諺解	자초
新增類合	유합	十九史略諺解	십구
樂章歌詞	악장	樂學軌範	악학
野雲自警	야운	諺解痘瘡集要	두요
女四書	여사	女小學	여소
譯語類解	역어	譯語類解補	역어補
練兵指南	연병	念佛普勸文	염불
永嘉集諺解	영가	靈驗略抄	영험
龍飛御天歌	용가	倭語類解	왜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우방		柳氏物名攷	유물
月印釋譜	월석	月印千江之曲	월천
五倫行實圖	오륜	誠女書	계녀
恩重經諺解	은중	二倫行實圖	이륜
字恤典則	자훈	正俗諺解	정속
鄭氏諺簡	鄭諺	增補三略直解	삼략
捷解新語	첩해	靑丘永言(吳氏本)	청구

靑丘永言(大學本)	청구대	淸語老乞大	청노
七大萬法	칠대	胎産集要	태산
太平廣記諺解	태평	漢淸文鑑	한청
海東歌謠	해동	華語類抄	화어
火砲式諺解	화포	訓蒙字會	자회
訓民正音	해례	訓民正音諺解	훈언

## 2. 방언 자료

### ① 필자 자신이 現地를 踏査하고 報告자를 선정하여 수집한 자료

조사 일시	조 사 지	성 명	연령	직업	성별	학력
1986.1	진천군 초평	고봉주	76	농사	여	무학
1986.2	음성군 생극	김창희	74	농사	남	무학
1986.7	중원군 산척	장기욱	68	농사	남	무학
1986.7	제원군 수산	이춘선	70	농사	남	무학
1987.1	괴산군 청천	전원규	71	농사	남	소학
1987.7	청원군 가덕	신금순	66	농사	여	무학
1988.7	보은군 관기	송길현	75	농사	남	한학
1988.8	옥천군 청성	전병선	66	농사	남	소학
1989.1	단양군 어상천	김도경	73	농사	남	소학
1989.1	단양군 장림	김재술	62	농사	남	소학
1990.7	영동군 상촌	유성희	72	농사	남	소학

### ② 다른 학자들이 수집한 자료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1944)
金亨奎	韓國方言研究(1974)
崔鶴根	韓國方言辭典(197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方言資料集Ⅲ(1987)

## 3. 음성 기호와 음운 부호

### ① 음성 기호

1) 단모음

i	ü	ĩ	ʉ	u
e	ö	Ǝ	ǒ	o
E		ə		
ε		ɜ		
		a		

2)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 wi we wE wε wə wa  
y계 이중모음 : ye yE yε yə yɜ ya yu yo yi  
ey ey əy ay oy uy iy

3) 자음

p	b	t	d	č	ǰ	k	g	
p'		t'		č'		k'		
ph		th		čh		kh		
				s	sy			
				s'	s'y	h	f	x
m		n		ny		ŋ		
		l	r	ly				

4) 기타

- ① 弱화된 音은 위로 올려 어깨글자로 적었다.  
例 : ku:mbE<sup>0</sup>i (굼벵이)      k'amag<sup>w</sup>i (까마귀)
- ② [:]는 長音 表示에 사용되었다.

② 음운 부호

1) 단모음

i	ü	ĩ	u
e	ö	ə	o
ε		a	Λ

2)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 wi we wε wə wa  
y계 이중모음 : ye yε yə ya yu yo yi

ey ey əy ay oy uy iy

3) 자음

p	t	č	k
p'	t'	č'	k'
ph	th	čh	kh
		s	
		s'	h
β	z		
m	n	ŋ	
	r		

## II. 개별 단어의 역사적 변화

1] 사귀다 : 문헌에는 ‘사괴-(두初8:25 금삼4:33 유합上3 石千16 동문上12)’로 나온다. 이 표제어에 대한 충북의 방언형들은 다음과 같이 충북을 두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게 한다.

sagü-<진천 음성 청원> sagwi-<중원>

sagu-<제원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들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uy’가 어떤 변화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곧 ‘uy>ü’ 단모음화와 ‘uy>u’ 변화 곧 ‘y’ 탈락 가운데 어느 쪽의 변화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akoy- > sakuy- > sakü-1)

sakoy- > sakuy- > saku-

2] 사금파리 :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egomphari<진천 괴산> segimphari<음성 청원>

sagimphari<중원 제원 보은> segamphari<옥천 영동>

segimčhari<단양> segamčhi<옥천> segimphɛŋi<보은>

k'ɛ:mphɛŋi<음성> k'ɛ:mphɛ'i<괴산>

이 방언형들은 표제어 ‘사금파리’의 ‘사금’이 한자어 ‘砂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접미사 ‘-파리/팡이/차리/치’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들의 예상되는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음성과 괴산 지역의 방언형은 어원이 다르므로 제외한다. 충북의 단양지역 방언형에 보이는 ‘-čhari’는 경북의 금릉과 봉화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옥천 지역의 방언형 ‘segamčhi’와 충남 논산 지역의 ‘segimčhi’, 충남 대덕 지역의 ‘segomčhi’, 강원도 정선 지역의 ‘sagimčhi’, 전북 익산 지역, 전남 장성과 나주 지역의 ‘sEgimčhi’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čhi’는 다시 ‘-앙이’와 결합하여 경북 청송 지역의 ‘segamčhɛ'i’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

1) 중원 지역의 방언형 ‘sagwi-’는 ‘ü’를 w계 상하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화 과정에 넣지 않았다.

된다.)

sakimphari > sekimphari > sekomphari

sakimphari > sekimphari > sekamphari

3] 사납다 : 정음 초기 문헌에는 ‘사오납-(석보19:10 월석18:54 능엄2:22 두初16:72)’으로 나오는데, 여사서에 오면 ‘사납-(여사3:18)’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nap- <전지역> s’angunha- <보은> sangunap- <괴산>

충북 전지역의 방언형 ‘sanap-’은 여기 ‘saon’에 접미사 ‘-ap’이 결합한 후 ‘o’의 탈락을 수행한 것이고, ‘sangunha-’는 여기 ‘saon’에 ‘ha-’가 결합한 후 ‘ŋ’과 ‘g’의 첨가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 연기 지역의 방언형이 ‘saonap-’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ao’라는 모음의 충돌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종류에 따라,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saonap- > sanap-

saonap- > sajonap- > saŋkonap- > saŋkunap-

4] 사닥다리[梯] : 근대어 문헌에 ‘사드리(역어上14 왜어上33 동문下16 한청310ㄹ)’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dari <제원 제외 전지역> sadari <제원 괴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비어두음질의 ‘·’가 ‘a’로 바뀌는 음운변화를 보여준다.

satari > satari > setari

5] 사람 : 초기 문헌에는 ‘사름(용15 석보6:5 능엄1:21 금강序5 자회下2)’으로 나오고, 후대 문헌에 ‘사름(마언下67) 사름(정속1) 살음(지장下15 정속8) 살음(정속7) 사람(유물一毛)’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aram’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비어두음질의 ‘·’가 ‘a’로 바뀌는 음운변화를 수행한 것으로 상정한다.

sarΛm > saram

6] 사례[噓] : 근대어 문헌에 ‘사리(한청382ㄹ) 샤리(역어補23 동문上63 한청439d)’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re <진천 음성 청원 보은> sarE <중원 제원 단양 옥천 영동>

sari <중원 괴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비어두음질의 ‘·’가 ‘ə’로 바뀌는 음운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syarΛy > sarΛy > sarəy > sare > sari<sup>4)</sup>

2) 방언 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Ⅳ』 p.109, 『한국방언자료집Ⅴ』 p.102, 『한국방언자료집Ⅵ』 p.138, 『한국방언자료집Ⅶ』 p.133을 참조할 것.

3) 語基 ‘saon’은 음성모음 계열의 ‘səun’과 대립하며, 여기에 ‘ha-’가 결합하여 ‘səunha-’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방언 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Ⅳ』 p.195를 참조할 것.

4) ‘어디’가 ‘어테’로 되는 변화 과정 ‘ət̪iy > ət̪əy’에 근거하여 ‘sarΛy > sar̪iy > sar̪əy’ 변화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사마귀[鬣] : 문헌에 ‘사마괴(법화2:15 사성上18 유합上22) 샬마괴(자회中34 역어上36 동문上19 한청159b)’와 ‘사마귀(왜어上51)’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magu<청원 제외 전지역> samagü<진천>

musamagu<청원> samaguy<청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uy’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amakoy > samakuy > samakü

samakoy > samakuy > samaku

8] 사위[婿] : 문헌에 ‘사회(석보6:16 두初7:33 번소10:15 자회上32 노언下31 역어上26 동문上10) 싸회(속삼烈7)’와 ‘사회(경민45)’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uy<진천 음성 청원> sau<진천 중원 청원 제외 전지역>

sawi<중원> sawe<괴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oy’와 ‘uy’의 변화에 따라 三分된다.

sahoy > sahuy > sauy > säü<sup>5)</sup>

sahoy > sahuy > sauy > sau

sahoy > saoy > säö<sup>6)</sup>

9] 사흘 : 문헌에 ‘사울(용가67 월석21:106 두初15:36 구간1:103) 사울(삼강孝24) 사흘(두초11:52 박初上55 분문5 속삼烈15 번소8:35 소언5:113 두요上34 가언4:24) 사흘(송강1:6 신속烈1:49)’ 등으로 나온다. 초간본 두시언해에 ‘사울’과 ‘사흘’이 함께 사용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sup>h</sup>il<영동 제외 전지역> sa:l<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sup>h</sup>ar > sa<sup>h</sup>ar > sahir > sair > sa:r

10] 살강[器架] : 근대어 문헌에 ‘사랑(동문下15 한청289b)’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lgaŋ<중원 제외 단양 제외 전지역> salgwaŋ<중원 제외>

tana<단양>

충북방언은 ‘ㄹ’ 다음의 ‘ㄱ’이 유지된 어형을 보여 준다. 위의 방언형들 가운데 어원이 다른 단양 지역의 방언형 ‘tana’를 제외하면,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7)</sup>

sarkaŋ > sarkwaŋ

11] 삼촌 : 한자어 ‘三寸’이다. 방언형은 단양에서만 ‘aǰE’로 나타나고, 나머지 전지역에서는 ‘samčhun’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고모음화를 수행한 것으로 상정한다.

samčhon > samčhun

5) 중원 지역의 방언형 ‘sawi’는 ‘ü’의 발음을 이중모음으로 잘못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괴산 지역의 방언형 ‘sawe’는 ‘ö’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7) 전국에서 ‘tana’ 또는 그와 유사한 어형을 찾을 수 없다.

12] 삼태기[蕘] : 문헌에 ‘산태(자회中19) 삼태(역어下19 왜어下15 동문下16) 삼퓌(유물二水)’ 등으로 나온다. 충북의 방언형은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접미사 ‘-미’가 후접한 형태만 보인다. 충북방언의 경우, ‘th’ 앞에 온 ‘n’이 이화작용을 수행하여 ‘m’으로 되느냐, 그냥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 소방언권이 나뉜다고 하겠다.

santhemmi<음성 중원 제외 전지역> samthemmi<음성 중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nthaymi > santhemmi

santhaymi > samthaymi > samthemmi

13] 상수리[橡實] : 후대 문헌에 ‘상실이(물보雜木) 상소리(방약41)’로 나온다.<sup>8)</sup>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aɲsuri<진천 중원 청원> čhamdothori<음성> tothori<괴산>

tothuri(단양) > ku:lɓam(중원) > kulɓam(보은 옥천 영동 단양)

k’ulɓam(단양) > kuram(중원 제원)

예상되는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sup>9)</sup>

saɲsori > saɲsuri

14] 상추[菘] : 문헌에는 ‘부루(자회上14 구간6:48 물보蔬菜)’와 ‘부로(박重中33 역어下10 한청377c 유물三草)’로 나온다. 후대 문헌에 ‘生菜’를 ‘승치(동문下3)’라고 부른 곳이 나오는데, 이 한자어 ‘生菜’가 국어사전에서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나물’ 또는 ‘익히지 않은 生菜蔬’의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데 반하여 중국어에서는 우리말의 ‘상추’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ɲčhu<제원 제외 전지역> saɲčhi<중원 제원>

purus’am<진천 괴산><sup>10)</sup>

진천과 괴산 지역의 방언형에 들어 있는 ‘puru’는 문헌어 그대로이므로 문제될 것 없고, 나머지 방언형들의 예상되는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aɲɲtshay > saɲtshay > saɲtshiy > saɲčhiy > saɲčhiy > saɲčhi

\*saɲɲtshay > saɲtshay > saɲtshoy > saɲčhoy > saɲčhoy > saɲčho >

saɲčhu

15] 새벽 : 문헌에는 어말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새박(원각序46 소언6:95 한중p.276) 새벽(동문上3 청구p.74)’이 그 한 가지요, ‘새배(원각상二之三27 두初7:14 속삼孝6 분문10 자회上1) 새배(신속孝6:21 역어補3) 사배(두重8:44 6:4) 사배(왜어上5)’가 다른 한 가지다. 충북 방언에서는 어말음이 자음인 어형만 조사되었다.<sup>11)</sup>

8) 문헌형 중 ‘상실이’는 한자어 ‘橡實’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훈몽자회에서는 ‘도토리’를 한자 ‘橡’의 훈으로 삼고 있어 흥미롭다(자회上11).

9) 방언형 ‘ku:lɓam<중원> kulɓam<보은 옥천 영동 단양> k’ulɓam<단양> kuram<중원 제원>’ 등은 중세국어의 ‘말밭[菱]’과 동일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10) 강원도의 방언형에 ‘부루’ 외에 ‘불구, 불기’가 있어 참고된다.

한국방언자료집II p.45 : pulgu(인제) pulgi(고성 평창 명주 영월 정선 삼척)

11) 경북의 칠곡 영천 영덕 원성 등지에서는 ‘sEɓE’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방언자료집VII』)

sebyək<진천 음성 중원 청원 괴산 옥천> sebok<제원 보은 영동>

sEbok<단양> sebak<옥천>

문헌어 가운데 어말음이 모음으로 되어 있는 ‘새 배/사 배, 새 베/사 베’ 등에 상응하는 어형은 충북방언에서 쓰이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나머지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ypak > saypək > səpək > səpok

saypak > saypək > saypyək > səpyək

16] 새암[妬] : 문헌에는 ‘새움(월천108 내훈1:81 유합下26 역어下48 소연2:55 김언69) 새움(김언73)’과 ‘시암(도산가)’이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m<옥천 제외 전지역> sya:m<옥천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yom > sayam > saaym > sa:y m > se:m

sayom > sayam > syaam > sya:m<sup>12)</sup>

17] 새우 : 정음 초기 문헌에는 ‘사비(해례용자)’와 ‘사이(능엄7:89) 사이젓(김언8, 178)’로 나오고, 후대의 문헌에 ‘새요(사성下31 자회上20 박初上70 동문下42 한청444d) 사요(동의湯液 2:12 태산74) 새오(왜어下26 유물二介 경신35 역어補38) 식오(화어58 방약51 유물一毛 가곡 p.26)’ 등으로 나온다. 충북에서는 민물새우와 바다새우를 구별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어형변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새우를 가리켜 부르는 명칭을 방언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ebeŋi<진천 음성 중원 청원 옥천> sebeŋi<괴산>

sabureŋi<보은> sabuŋge<영동> seu<전지역>

방언형 가운데 ‘새뱅이, 사붕개, 사부랭이’ 등의 ‘ㅂ’ 유지형들은 초기 문헌형 ‘사비’에 대응하는 재구형 ‘\*사비’에 접미사 ‘-앙이/웅개/랑이’가 후접되면서 어말모음 ‘i’의 탈락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방언형 ‘seu’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βi > sai > sayi > sayo > sayu > seu<sup>13)</sup>

18] 샘[泉] : 초기 문헌에는 ‘심(용가2 해례용자 두初7:23 자회上5)’으로 나오고, 후에 ‘샘(유물五水)’과 ‘시움(청구大p.132) 시암(방약59)’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m<옥천 영동 제외 전지역> sye:m<단양>

sya:m<청원 옥천 영동>

경북의 방언형 가운데서는 ‘sya:m’ 형태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충남의 방언형 가운데서는 ‘seam’과 ‘sya:m’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를 끈다.<sup>14)</sup>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216).

12) ‘sayom > sayam > sayom > sayam > seam > se:m > se:m’의 변화 과정은 ‘뱀[蛇]’의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는 변화 과정과 동일한데, 이것은 방언형 ‘peam’ 또는 ‘peyam’을 엄두에 둔 것이므로 방언형으로 ‘seam’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충북방언의 경우는 음운도치에 의한 ‘sayom > sayam > saaym > sa:y m > se:m’의 변화 과정을 선택한다. 경북방언에서도 ‘새암’ 형태를 발견할 수 없음이 흥미롭다(『한국방언자료집Ⅶ』 p.133).

13) 모음 ‘a’와 ‘i’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y’ 첨가현상에 관해서는 도수희(1985)를 참고할 수 있다.

14) 『한국방언자료집Ⅳ』 p.69, 『한국방언자료집Ⅶ』 p.82를 참조할 것.

sɔym > saym > sem

sɔym > saym > syam

단양의 방언형 ‘syɛ:m’은 다른 지역의 방언형 ‘sya:m’의 어두자음에 유추된 것이거나, ‘sya:m’의 ‘a’가 ‘ɛ’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할 수 있을 것인데, 필자는 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한다.

19] 서까래 : 초기 문헌에는 ‘서(법화2:105 두初16:28 자회中6)’로 나오고, 후대 문헌에 ‘섯가래(동문上35)’와 ‘혀(박언下46 박重下12 역어上17 유합上23) 혁가래(물보第宅) 헛가래(박重下46) 헛가래(청구p.31)’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어두 ‘s’ 쪽만 확인되었다.<sup>15)</sup>

sək’arE<진천> sək’arE<진천 청원 제외 전지역>

sək’ir<청원 보은 옥천>

청원 보은 옥천 지역의 방언형 ‘sək’ir’은 문헌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전북 무주 고창 순창, 전남 영광 장성 담양 함평 광산 신안 무안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완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서까래’의 축약형인 ‘sək’ar’에서 ‘a’ 대신 ‘i’가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된다.<sup>16)</sup> ‘서까래’ 형은 초기 형태 ‘서’가 ‘가래’와 결합한 것으로서 그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əskaray > syək’aray > sək’aray > sək’arɛ

20] 서캐[蟻] : 문헌에 ‘혀(자회上23 유합上16 역어下35)’와 ‘석하(유물二昆)’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khE<진천> səkhɛ<음성 중원 제원 단양 괴산 옥천>

səkhEŋi<진천> səkhEŋi<청원> səkhɛŋi<보은>

səkhari<영동> səkhari<보은 옥천> səkharE<영동>

방언형 가운데는 초기 문헌형 ‘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으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여기 ‘혀’에 접미사 ‘-ay/-aŋi/-aray/-ari’가 결합한 후 ‘ㅎ’ 구개음화를 수행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hyəkha > syəkha > syəkhay > səkhay > səkhɛ

\*hyəkha > syəkhaŋi > səkhaŋi > səkhɛŋi

\*hyəkha > syəkharay > səkharay > səkhare

\*hyəkha > syəkhari > səkhari

21] 석유 : 한자어 ‘石油’이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yyu<진천 옥천 영동> sögi<음성 옥천>

səgyu<중원 제원 단양 청원 괴산>

syigi<단양> segi<괴산 보은> segi čirim<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5) 경북의 봉화 영덕 영일 등지에서 현대에도 어두 ‘ㅎ’ 쪽 방언을 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구개음화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방언자료집Ⅶ』 p.78).

16) 『한국방언자료집Ⅴ』 p.60, 『한국방언자료집Ⅳ』 p.81을 볼 것.

səkyu > sekyu > sekyi > seki > siki<sup>17)</sup>

22] 설달 : 문헌에 ‘섯달(두初10:45 구간6:23 구방下58 역어上4 동문上4 노언下32) 섯솔(분문8 태산66) 선돌(신속孝1:12)’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t'ar<진천>    si:t'ar<진천 제외 전지역>

문헌형 중 받침 ‘ㅅ’ 形은 명사 ‘설’과 ‘달’의 합성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 ‘-ㅅ’을 가진 것이고, 받침 ‘ㄷ’ 形은 그 ‘ㅅ’이 중화작용에 이어 후속음절 초두 자음의 경음화를 수행한 것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əstʌr > sət'ʌr > sət'ar > sit'ar

23] 설마 : 문헌에 ‘혈마(월천121 청구p.55 고시조) 혈마(노계陋巷, 고시조) 헛마(고시조)’ 그리고 ‘설마(청구大p.130)’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əlma’이다.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hyənma > hyərma > syərma > sərma<sup>18)</sup>

24] 설흔 : 문헌에 ‘설흔(월석9:51 두初8:21 소언1:6 동문下20 한청106a 삼강忠13)’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rin<진천 제원 청원 보은 옥천>

sərʰin<음성 중원 단양 괴산 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ərhin > sərhin > sərin

25] 세다[計] : 이 표제어와 관련된 문헌형으로는 ‘計’의 뜻만이 아니라 ‘商量’의 뜻도 함께 가진 ‘헤-(석13:8 두초1:20)와 ‘혜-(석보19:11 두初15:5 박初8:36)’ 및 ‘혜-(고시조)’ 그리고 ‘혜아리-(월석21:138 능엄1:76 법화3:198 동문上19)’를 찾을 수 있다. 방언형도 다음과 같이 두 종류가 있다.

se:-<진천 중원 청원>    syi-<진천 중원 제외 전지역>    syiari-<음성>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hyəy- > syəy- > sye- > se- > si-

hyəyari- > syəyari- > syeari- > seari- > siari-

26] 세수[盥] : 문헌에 ‘세슈(유합下8 소언2:3) 세슈하다(소언2:2) 세슈대야(동문下15 한청225c) 등이 보인다. ‘세슈’는 ‘낮을 씻다’의 뜻으로도 쓰였고 ‘낮 씻을 물’의 뜻으로도 쓰였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su<단양 옥천 제외 전지역>    syisu<음성 단양 괴산 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əysyu > səysu > sesu > sisu

27] 셋 : 초기 문헌에 ‘쌩(석보13:48 월천153 능엄8:111)’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17) 방언형 ‘söki’는 ‘e’를 ‘ö’로 되돌린 발음에 지나지 않는다.

18) ‘ㄴ’이 ‘ㄷ’로 바뀐 것은 ‘언마/언머’의 변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syi:s<중원 제원 단양 제외 전지역>

se:s<진천 중원 제원 단양 옥천> si:i<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əyh > səys > ses > sis

səyh > səy > siy<sup>19)</sup>

28] 소경[盲] : 문헌에 ‘소경(자회中3 내훈三10 소연1:2 청구p.106 無冤錄1:11) 소경(역어上 29)’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gyəŋ<진천 중원 제원 청원 옥천>

sögyəŋ<음성 청원 괴산 보은> syügyəŋ<단양>

충남방언의 ‘soygyəŋ(공주) so<sup>y</sup>gyəŋ(아산 천원 홍성 청양 공주 연기 보령 부여 대덕) so<sup>y</sup>gyəŋ(당진) sögyəŋ(예산 공주) sö:gyəŋ(서천 논산 금산) suygyəŋ(서산) su:gyəŋ(서산)’ 등과 강원방언의 ‘so<sup>y</sup>gyəŋ(철원 인제) soygyəŋ(양양) sö:gyəŋ(양구 인제 홍천 명주 원성 영월)’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sup>20)</sup>

syokyəŋ > sokyəŋ > soykyəŋ > sökyəŋ

syokyəŋ > sokyəŋ > soykyəŋ > sokyəŋ

syokyəŋ > sokyəŋ > soykyəŋ > suykyəŋ > sükyəŋ

29] 소금 : 문헌에 ‘소금(두初7:34 자회中22 유합上30 동문上61) 쇼금(유물五石)과 ‘소금(박 重中6)’이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gʌm<중원 괴산 영동> sogim<제원 단양>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화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okom > sokim

30] 소나기[澍雨] : 문헌에 ‘쇠나기(두初18:19 자회上3 역어上2 동문上2 송강2:12 청구 p.105)’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nəgi<진천 옥천 영동> s'onEgi<음성 중원 괴산 보은>

sonEgi<제원> s'onagi<단양> s'onakp'i<단양 청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ynaki > sonaki > sonəki<sup>21)</sup>

soynaki > sonaki > s'onaki > s'onəki

31] 손가락 : 문헌에 ‘손가락(능엄6:104 유합上21 동문上16 신속三孝3) 손까락(월석7:38 분 문7 박初上13) 손ᄃ가락(능10:42) 손ᄃ락(신속孝3:31 두요上4)’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nk'urak<진천 단양 옥천> sonk'arak<청원>

sonk'urak<음성 중원 괴산 보은 영동> sonk'irak<제원>

19) 영동 지역의 방언형 ‘si:i’는 ‘si:y’를 두 음절로 늘여서 낸 발음을 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20) 『한국방언자료집Ⅱ』 p.88, 『한국방언자료집Ⅳ』 p.86을 볼 것.

21) 강원도 양양 지역의 방언형 ‘sonaygi’를 근거로 ‘sonaki > sonayki > sonəki’의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방언자료집Ⅱ』 p.179).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nk'arak > soŋk'arak

sonk'arak > sonk'orak > sonk'urak > soŋk'urak > soŋk'irak<sup>22)</sup>

32] 숨 : 문헌에는 '소음(두初15:9 구간6:4 월석2:41 삼강孝1 박초上44 자회中24 노연上12 동문下25 한청322췔 유물三草 역어補49)'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o:m'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이 말이 ㅍ長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oom > soim > so:m

33] 송사리 : 근대어 문헌에 '송스리(해동p.117) 송사리(역어補49)'가 보인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oŋsari'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23)</sup>

syoŋsyari > soŋsari

34] 송아지 : 문헌에 '쇠야지(두初25:51 구간3:31 유합上13 왜어22 石千38 동문下38 한청441a) 쇠야지(소아6) 쇼야지(백련9) 쇠야치(역어下30) 송아지(자회上18)'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ŋaŋi<전지역> soŋači<진천 보은>

'쇼'에 '-아지'가 후접될 때 'oa'의 모음연쇄를 해소하기 위해 'y'나 'ŋ'이 개입된 형태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oyatsi > syoŋatsi > syoŋači > soŋači<sup>24)</sup>

35] 쇠다 : 문헌에는는 '老'의 뜻으로 쓰인 '쇠-(두창上34)'와 '了'의 뜻으로 쓰인 '쇠-(역어補42)'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wE:sə<음성 중원 단양 제외 전지역> sō:sə<음성>

sE:sə<단양> swE:t'a<중원 제외>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y- > sō-<sup>25)</sup>

36] 쇠사랑 : 문헌에 두 종류의 어휘가 나온다. 하나는 '쇠슬히(월석23:82, 87)'이고, 다른 하나는 '쇼사랑'이다. 후자는 '쇼사랑(사성下29 물보耕農) 쇠쇼사랑(역어下8) 나모쇼사랑(역어下8)'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syiraŋ<단양 청원 영동 제외 전지역> sosiraŋ<단양 영동>

syisiraŋ<단양> sōsyiraŋ<청원>

충북의 다수 방언형인 'sosyiraŋ'은 문헌형 '쇼슬히'에 직접 소급하므로 문제될 것 없고, 나머지 방언형들은 또 다른 문헌형 '쇠슬히'에 다시 접미사 '-양'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22) 강원도 철원 영월 지역과 충남 서산 아산 보령 지역 및 경북 함평 지역의 방언형 'soŋk'orak'과 충남 공주 부여 지역의 방언형 'sonk'orak'을 참조할 수 있다(『한국방언자료집Ⅱ』 p.94, 『한국방언자료집Ⅳ』 p.93).

23) 영동 지역에서는 'soŋsarit'e'와 'tork'ari'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24) 'y'가 'ŋ'으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쇼'와 '-아지'가 결합할 때 직접 'ŋ'이 첨가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천과 보은 지역의 방언형 'soŋači'는 격음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봐 얹고 접미사 '-아지'를 결합시킨 것으로 처리한다.

25) 단양의 방언형의 'sE-'는 음성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방언형 'swE-'가 'w'를 떨어뜨린 음성실현형인데, 이것은 음성 지역의 방언형 'sō-'의 'ō'를 쉽게 발음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oysirhaŋ > soysiraŋ > soysiraŋ > sösiraŋ<sup>26)</sup>  
soysirhaŋ > soysiraŋ > sösiraŋ > sesiraŋ > sisiraŋ  
soysirhaŋ > soysiraŋ > sosiraŋ  
syosiraŋ > sosiraŋ

37] 수령 : 문헌에 ‘취궁(월석18:40 법화6:155 자회中6 부문1) 식금(두경14) 식공(역어上6 취궁치(청p.103)와 ‘술항(유물五土)’의 二種이 보인다. 방언형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온다.

surəŋ<음성 중원 보은> sü:<진천 중원 청원>  
su:<괴산 옥천 영동> su:thoŋ<제원> su:k’udeŋi<괴산>

제원 지역의 방언형 ‘su:thoŋ’과 괴산 지역의 방언형 ‘su:k’udeŋi’는 각각 전부요소 ‘su’와 후부요소 ‘thoŋ’ 및 ‘k’udeŋi’로 분석 가능하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urhaŋ > suraŋ > surəŋ  
\*suβi > sui > suy > su<sup>27)</sup>  
\*suβi > sui > suy > sü<sup>28)</sup>

38] 수염 : 한자어 ‘鬚髯’이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yüəm<진천 음성 괴산 옥천> suyəm<음성 중원 보은>  
šyə:m<청원> suyöm<보은> syüyəm<옥천>  
sö:m<제원> swe:m<단양> soyom<단양> šyia:m<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əm > süəm  
suyəm > suyyəm > süyəm  
suyəm > suyom > soyom > sooym > so:ym > sö:m<sup>29)</sup>

39] 수제비 : 문헌에 ‘슈저비(사성上77 역어上51) 슈접이(물보飲食)’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uǰebi<진천 중원 제원 청원 괴산 옥천>  
suǰibi<음성 단양 보은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utsyæpi > syučyæpi > sučæpi > sučepi > sučipi

40] 수채 : 문헌에 ‘슈채(역어補14 동문上36) 슈치(한청290a 물보第宅)’가 보인다. 방언형은

26) 청원 지역의 방언형 ‘sösiraŋ’을 ‘syosirhaŋ > sosiraŋ > sösiraŋ’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o’의 umlaut 조건에 미흡하므로 불가하다.

27) 경북 상주 지역의 방언형 ‘suú’ 및 문경 지역의 방언형 ‘subeŋi’와 금릉 지역의 ‘subriŋi’ 및 경북 대다수 지역의 방언형 ‘su:bi / subi’ 등이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한국방언자료집Ⅶ』 p.84).

28) ‘시궁창’의 전부요소 ‘시’는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suy > siy > si

29) 단양 지역의 또 다른 방언형 ‘swe:m’은 ‘ö:’의 발음을 이중모음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지역이 ‘sučhe’이므로, 예상되는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syutshay > syučhay > sučhay > sučhe

41] 술(酒) : 문헌에 ‘수을(석보9:37 월석1:43 두初8:27 삼강孝22)’과 ‘수을(두初8:28 삼강孝6 내훈1:33 분문6 박初上2 속삼孝6)’ 그리고 ‘술(능엄7:53 두初8:61 범화4:37 월각序 구간6:65 자회中21 유합下40 분문9 김언24, 114)’ 등의 세 가지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ul’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i>a:’ 변화나 ‘oi>o:’ 변화처럼 ‘ui>u:’ 변화를 상정한다.<sup>30)</sup>

\*suβir > suir > su:r<sup>31)</sup>

42] 숭늉 : 문헌에는 ‘무근숙늉물(동의湯液1:18) 숭늉(두경20) 숭늉(역어上49) 숙늉(유물五水) 숙용(청구大p.146) 숙늉(여소4:12a)’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 방언형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uŋnyuŋ<진천 증원 제원 청원 보은> suŋnuŋ<음성>  
suŋneŋ<음성 괴산> suŋnEŋi<중원> suŋnaŋ<괴산>  
suŋnaŋmur<옥천> suŋnyəŋ<영동> suŋnyəŋ<영동>  
suŋnyəm<단양> suŋnyim<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sup>32)</sup>

syuknɔɯŋ > syuŋnɔɯŋ > syuŋnaɯŋ > suŋnaɯŋ > suŋneŋ  
syuknɔɯŋ > syuŋnɔɯŋ > syuŋnaɯŋ > suŋnaɯŋ > suŋnaŋ > suŋnuŋ  
syuknɔɯŋ > syuŋnɔɯŋ > syuŋnaɯŋ > syuŋnyəŋ > suŋnyəŋ  
> suŋnyəŋ  
syuknɔɯŋ > syuŋnɔɯŋ > syuŋnaɯŋ > syuŋnyəŋ > syuŋnyuŋ  
> suŋnyuŋ

43] 쉬[蝨卵] : 문헌에 ‘쉬(역어上53 동문下42 한청450b)’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ü<단양 제외 전지역> swi<제원> syi<단양>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 > sü<sup>33)</sup>

44] 쉬다[饑] : 문헌에 ‘쉬-(자회下12 소언3:25 동문上58)’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30) 다음과 같은 變化例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으-(烹) > 고- / ㅁ슴 > ㅁ음 > ㅁ음 > 가음 > 감 / ㅁ슌 > ㅁ음 > ㅁ을 > 고을 > 골  
고코을- > 코골- / ㄷ뵐- > ㄷ외- > 도외- > 뉘-

31) ‘β’가 ‘w’로 변한 경우에는 \*suβir > suwir > suur > su:r’의 변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32) 단양과 영동 지역의 방언형들은 어말의 ‘ŋ’을 ‘m’으로 바꾼 형태인데, 전남 영광 장성 담양 함평 신안 무안 나주 화순 승주 진도 강진 장흥 보성 여천 완도 등지와 강원도 평창 영월 정선 등지 및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청양 공주 보령 부여서천 논산 금산 등지에서 ‘suŋnyim’을, 전남 광산 지역에서 ‘suŋnyəm’,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suŋnyum’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지역 방언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한국방언자료집Ⅵ』 p.57, 『한국방언자료집Ⅳ』 p.48, 『한국방언자료집Ⅱ』 p.49 참조).

33) 제원 지역의 방언형 ‘swi’는 ‘ü’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이고, 단양 지역의 방언형 ‘syi’는 ‘ü’의 원순성을 소실시켜 발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syü-〈단양 제외 전지역〉 sywi-〈단양〉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 > sü-

45] 쉰[五十] : 문헌에 ‘쉰(석보19:2 능엄2:85 월석8:103 두初22:35 박初上2)’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ü:n<중원 단양 영동 제외 전지역〉 syüan<중원〉 sywi:n<단양〉

syi:ʰin<영동〉

중원과 영동 지역의 방언형들은 ‘쉰’을 ‘설흔 마흔 일흔’ 등에 맞추어 발음한 것이므로 문체될 것 없고, ‘syü:n’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ñ > süñ<sup>34)</sup>

46] 쉽다 : 문헌에 ‘쉽-(훈언 법화1:223 변소8:11 금삼3:14 동문下52)’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üp-〈영동 제외 전지역〉 sywip-〈단양〉 syip-〈단양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p- > süp-

47] 스물[二十] : 초기 문헌에 ‘스뿡(용32 석보6:38 능엄2:6 법화2:57 가언3:20)’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imur<진천 중원 청원〉 syimur<음성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sumur<제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imirh > simir > simur > sumur

simirh > simir > simur > simur

48] 시래기[棲菹] : 근대어 문헌에 ‘시락이(물보飲食)’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iregi<진천 청원 괴산 보은〉 s'yirEgi<음성 중원 제원 단양 영동〉

syirEgi<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iraki > sireki > s'ireki<sup>35)</sup>

49] 시렁 : 문헌에는 ‘실에(두初7:6 자회中14 유향上24)’와 ‘시렁(왜어上33 소연2:50<sup>36)</sup>)’ 두 가지 어휘가 보인다. 충북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문헌형 ‘시렁’ 쪽만 있다.

syirgəŋ<진천 청원〉 syirgəŋ<음성 괴산 보은 옥천 영동〉

syirgwəŋ<중원〉 syirgwəŋ<제원 단양〉 syirəŋ<중원〉

34) 영동과 중원 지역의 방언형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suyñ > suyin > suyhin > sühin > sihin

suyñ > suyin > suyun > süun

35) 경북 안동의 방언형 ‘syiragi’와 충남 당진 지역의 ‘s'yiragi’를 참조할 수 있다. 충남 아산과 예산 지역의 방언형 ‘syiraguy’ 및 보령 부여 서천 논산 대덕 금산 지역의 방언형 ‘syiragu’는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한국방언자료집Ⅶ』 p.44, 『한국방언자료집Ⅳ』 p.39 참조).

36) 宣祖版 소학언해임을 밝힌다.

중원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ㄱㄱ’ 形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언형들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irkəŋ > \*sirfəŋ > sirəŋ<sup>37)</sup>

\*sirkəŋ > sirkwəŋ > sirkwaŋ<sup>38)</sup>

50] 시루 : 문헌에 ‘시르(구방上71 사성上15 자회中10 노언下30 동문上59)’와 ‘시르(분문21 역어下14)’로 나온다. 후자는 ‘·’의 동요가 반영된 자료로 생각된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yiru’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방언 ‘실구(강원), 실기(평남, 함남, 함북, 자강), 실구떡(강원), 실기떡(평남, 자강, 함남, 함북, 량강, 강원)’ 등과 경북 영풍 예천 영양 상주 지역의 방언형 ‘syrgi’ 및 고령 지역의 방언형 ‘syrrī’에 의거하여 ‘\*sirkV’를 재구할 수 있다.<sup>39)</sup>

\*sirki > \*sirfi > siri > siru

51] 시원하다 : 문헌에 ‘식훤호-(삼강烈18 두창下43 소언5:55 내훈1:17 유합下15 박重上40 동문上20 한청1798)’와 ‘식훤니(삼강烈18 두창下43) 식훤이(첩해8:11)’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ə:nʰa- <진천 옥천 영동> syiwənʰa- <음성 청원>

syiənʰa- <중원 제원 단양 괴산 보은>

‘시원하다’의 어근 ‘시원’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iyhwən > siywən > siwən > siən > syən

52] 심다 : 중세국어에서는 활용시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심-(석보6:37 월석8:63 두初7:9 동문上29)’과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심-(원각下三之一56) 시르-(석보19:33 두初15:19 금삼2:21)’의 교체를 보여준다. 충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형태가 쓰인다. ‘ㄱ’ 形은 특히 충북의 남부 지역에서 쓰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yim- <보은 제외 전지역> syingu- <보은 옥천 영동>

재구형 ‘\*simki-’에서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면 ‘simk-’ 형태가 되고, 마지막 자음이 탈락하면 ‘simi-’ 형태가 되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imki- > simi- > sim-

\*simki- > simku- > siŋku-

53] 싯다 : 문헌에 어말자음의 유무에 따라 ‘식브-(월천132 두初10:28 구간6:16 삼강烈13) 싯브-(변소8:1) 싯브-(삼강烈13 신속三烈6)’ 등과 ‘시브-(이륵重30 첩신1:10 첩몽2:5 계축p.60) 시프-(가언5:6 첩신7:20)’ 등의 두 가지 형태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iph- <진천 제외 전지역> suph- <영동> syiphi- <진천>

čəph- <옥천>

37) 충남 서산 지역의 ‘sirrəŋ’이 참고 자료가 된다(『한국방언자료집Ⅳ』 p.58 참조).

38)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언형 ‘sirkəŋ/siraŋ’은 ‘w’ 첨가 이전에 ‘ə>a’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한국방언자료집Ⅶ』 p.68, 『한국방언자료집Ⅵ』 p.398참고).

39) 북한의 방언자료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 p.112를, 경북의 방언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Ⅶ』 p.59를 볼 것.

옥천 지역의 방언형 ‘čəph-’은 충남 금산 지역의 방언형 ‘čəph-’ 및 부여 논산 지역의 방언형 ‘čəph-’, 그리고 전남 대부분 지역의 방언형 ‘čəp-’ 및 영광 강진 장흥의 방언형 ‘čəph-’, 경북 예천 안동 청송 영덕 금릉 영일 경산 영천 지역의 방언형 ‘čɕp-’으로부터 영향을 입은 형태로 보일 뿐, 여타 방언형들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제외하면, 나머지 방언형들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sup>40)</sup>

sikpi- > sippi- > sip'i- > siph- > siph- > suph-

54] 싸우다 : 문헌에 ‘싸호-(용가87 석보9:16 월석1:26 한청110b) 사호-(남명上69 두初22:4 능엄9:19 법화5:63 원각下三之二83) 빠호-(역어補47 한청66a 청구p.83 삼략上19 십구1:3)’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u-<옥천 영동 제외 전지역> s'ao-<옥천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ho- > s'aho- > s'ao- > s'au-<sup>41)</sup>

55] 씨레[杷] : 문헌에 ‘서흐레(자회中17)와 ‘빠흐레(한청295a 물보耕農)’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i:re<진천 보은 영동> s'ə:re<진천> s'ə:re<청원>

s'i:re<음성 증원 제원 단양 괴산 옥천> s'i:ri<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42)</sup>

səhirəy > s'əhirəy > s'əirəy > s'ə:rəy > s'ə:re > s'i:re > s'i:ri

səhirəy > s'əhirəy > s'əirəy > s'ə:rəy > s'ə:re > s'i:re

səhirəy > s'əhirəy > s'əirəy > s'ə:rəy > s'ə:re

56] 썩다 : 문헌에 ‘석-(월석18:39 능엄4:80 법화2:56 두初18:17 자회下13 구방下77 동문上62) 싹-(송강1:5) 싹-(몽어上48 경신73) 석-(유물5土)’ 등으로 나온다.<sup>43)</sup> 방언형은 전지역이 ‘s'ək-’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ək- > s'ək-

57] 썰매 : 문헌에 ‘썰마(한청119a 물보舟車)’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rme<진천 청원 괴산 보은> s'ərmE<음성 증원 단양>

s'ərma<옥천><sup>44)</sup>

40) 『한국방언자료집Ⅳ』 p.266, 『한국방언자료집Ⅵ』 p.351, 『한국방언자료집Ⅶ』 p.334를 볼 것.

41) 강원도는 평창 명주 원성 영월 정선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경상도는 영덕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전라도는 신안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s'ao-’를 사용하고 있고, 충남은 전지역에서 ‘s'au-’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한국방언자료집Ⅱ』 p.302, 『한국방언자료집Ⅶ』 p.381, 『한국방언자료집Ⅵ』 p.398, 『한국방언자료집Ⅶ』 p.299 참조).

42) 강원도 정선 삼척 지역에서 쓰이는 ‘s'əgire’와, 전남 영광 장성 담양 지역의 ‘s'əuri’, 광산 무안 나주의 ‘s'əure’, 함평의 ‘s'əorE’ 등은 문헌형 ‘서흐레 / 빠흐레’의 ‘ㅎ’의 변화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방언자료집Ⅱ』 p.26, 『한국방언자료집Ⅵ』 p.28 참조)

43) 소학언해(5:20)에 ‘麴蘖’을 주해하여 ‘눌옥과 세김이니 술을 닦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석-’과 ‘삭-’은 모음대립에 따라 분화된 어례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세김’은 ‘석-’에 사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səyki-’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4) 이 방언형은 충남 금산 지역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방언자료집Ⅳ』 p.113 참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hyərma > syərma > sərma > s'ərma

\*hyərma > syərma > syərmay > sərmay > s'ərmay > s'ərme

58] 썰기[楔] : 문헌에 '쇠야미(법화序21 남명下57)'와 '쇠야기(사성下83 자회中18 역어上17) 쇠야기(첩해5:22) 쏘야기(한청405c) 뽀야기(한청360a)'의 二種이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wɛ:k<진천 청원> s'wEak<음성>

s'wE:k<진천 청원 옥천 제외 전지역> s'wegi<청원 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yak > soayk > soək > swək > s'wək

soyaki > soayki > s'oayki > s'oəki > s'wəki

soyak > söak > s'öak<sup>45)</sup>

59] 쭈시다 : 문헌에는 '쭈시-(소언3:23 두요下21 내훈重1:3 역어上47) 쭈시-(계축p.9) 쭈시-(한청213c, 217c) 슈시-(유물五土)' 등과 '쏘시-(여소1:21a)'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usyi-<진천 음성> hubi-<중원 제원>

ϕubi-<단양 청원> ϕübi-<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방언형 가운데 '후비-' 계통은 문헌어와 어원이 다르므로 제외하면,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syusi- > s'yusi- > s'usi-

60] 쓰레기 : 근대어 문헌에 '쓸어기(경신24)'가 보인다. 이 말은 '掃' 또는 '拂'의 뜻으로 쓰인 중세국어의 동사어간 '빨-(석6:6 월천55 삼강孝7 금삼2:54 자회下23 유합下8)'에 접미사 '-어기'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iregi<진천 음성 청원> s'irEgi<중원 제원 단양 옥천>

s'iregi<보은> s'iregi<괴산> s'irigi<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sirəki > s'irəki > s'ireki > s'ireki > s'iriki

psirəki > s'irəki > s'ireki > s'ireki > s'ireki

61] 씬바귀[苦菜] : 문헌에 '्ष바귀(동문下4) 씬바귀(한청377a) 씬박위(해동p.95)' 등으로 나온다. '種花菜'의 뜻으로 쓰인 '्ष비(유물三草)'를 참조할 수 있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imbagu<진천 중원 제원 괴산 보은>

s'imbagu<단양> s'imbaguy<청원>

s'yimbE<음성 중원> s'yinnamur<보은 옥천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sinpakoy > s'inpakoy > s'impakoy > s'impakuy<sup>46)</sup>

45) 음성 지역의 방언형 's'weak'은 's'öak'의 'ö'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46) 충남 아산 지역의 방언형 's'yimbaguy'와 공주 지역의 방언형 's'yimbagü'를 위해서는 'uy>u' 또는 'uy>ü'

\*psɪnpakoy > s'ɪnpakoy > s'ɪmpakuy > s'ɪmpaku > s'ɪmpaku

\*psɪnpɾay > s'ɪnpɾay > s'ɪmpɾay > s'ɪmpay > s'ɪmpɛ > s'ɪmpɛ

---

변화 이전에 'i>i' 변화 과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방언자료집IV』 p.162 참조).

## 참 고 문 헌 【 參 考 文 獻 】

- 고영근, 2004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김완진, 1972 「다시 β>w를 찾아서,」 『어학연구』 8, (서울대학교) : 1.
- 김정태, 1996 『국어 과도음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진우, 1967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어문연구 5』, (어문연구회)
- 김충희, 1992 『충청북도의 언어지리학, (인하대학교출판부)
- 도수희, 1985 「한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부음 y에 대하여,」 『한글179』, (한글학회)
- 유창돈, 1973 『이조어사전』, (연세대학출판부)
- 이기문, 1991 「19세기말엽의 국어에 대하여,」 『남광우박사화갑기념논문집』
- 이승녕, 1977 「/ㄹ/음의 소실기 추정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16』
- 전광현, 1976 「남원지역어의 어말 u형 어휘에 대한 통시론적 소고,」 『국어학 4』
- 전철웅, 1986 「‘해(爲)’의 음운론적 이해,」 『국어교육 65』, (한국어교육학회)
- 전철웅, 1998 『충북방언의 역사적 연구』, 도서출판 보고사
- 전철웅, 1999 『충북방언의 단어 변천사』, 도서출판 보고사
- 전철웅, 2000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1),」 『운강송정현선생화갑기념논총』
- 전철웅, 2000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2),」 『어문논총 9』,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
- 전철웅, 2001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3),」 『개신어문 18』, (개신어문학회)
- 전철웅, 2004 「한국어의 Metathesis에 관한 一考察 : 충북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 전철웅, 2005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4),」 『인문학지 31』,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전철웅, 2006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5),」 『인문학지 33』,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전철웅, 2007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6),」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전승, 1983 「표면음성 제약과 음성변화,」 『국어교육 44·45』, (한국어교육학회)
- 황대하, 1999 『조선어 방언 연구』, (심양:료녕민족출판사)